

문, 민생기치로 막판 세확산 총력전 ... 박, TK·울산서 텃밭다지기

각종 여론조사 상승세 뚜렷...주말 대역전 노력

정운찬·이수성씨 가세...중도·부동층 공략 타력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이전 약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선거를 일주일 앞둔 12일 민생 혁신을 내걸고 중도·부동층 흡수 등 세 확산에 총력전을 벌였다.

문 후보 측은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해 반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주말 대역전을 이룬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문 후보 측은 김덕룡 전 의원 등 일부 상도동계 인사와 정운찬, 이수성 전 총리에 이어 지난 2007년 대선에 출마했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막판 승부처인 중도층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이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문 전 대표와는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중도부수에 이어 합리적인 개혁인사까지 가세함에 따라 문 후보의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민생혁신을 기치로 내건 '민생 대통령', '서민 대통령' 이미지 각인을 막판 선거전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후보는 지난 6일 교육, 의료, 주거 등 3대 가계지출을 줄이는 '필수생활비 절반시대' 공약을 발표한 이후 정년연장 등 50대 공약, 10대 인권정책, 강군복직 비전약

속 등 거의 매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청주, 공주 등 충청 지역 네 곳과 경기 평택을 돌며 중원 및 수도권 표심 확보에 총력전을 벌였다.

이는 최대 표밭인 수도권,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예측불허의 대흔전 판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 후보는 충청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열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판세로 뒤집기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측은 합리적 보수 성향인 정 전 총리의 지지 선언으로 충청 지역 표심잡기는 물론 중도층과 부동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충청권 유세에 이어 13일에는 호남을 방문,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특히, 호남을 발표한 이후 정년연장 등 50대 공약, 10대 인권정책, 강군복직 비전약

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 투표율과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종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달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통령을 소망하고 있다"며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대신하고, 청와대는 더이상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용어가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 휴식 공간을 뜻하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수층 공략...유세 수행중 시당 당직자 빈소 조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2일 대구·경북(TK)과 울산 등을 순회하며 텃밭 다지기에 집중했다.

박 후보는 이날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경북 경주시 경주역·포항시 포항역·경산시 경산청과 시장, 대구시 동성로 등을 찾았다.

이번 일정은 전날 제주를 방문한 데 이어 그동안 유세활동이 미진했던 지역을 광복으로 훑는 거점별 전국투어의 일환이다. 대선전이 '보수 대 진보'의 세(勢)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의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울산 동북아오일 허브

구축과 경북도청 신도시 명품화 조성 사업 등 지역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대구에선 지역 현안인 K2 공항 이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후엔 충북 옥천과 청주지역 상당구 등에서 야간 유세를 한 뒤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청주시 상당구는 충북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이다.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가 당선됐지만 매번 선거전마다 여야간 표심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지역이기도 하다.

앞서 이날 오전 박 후보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우동 후보집당의 빈소를 찾

아 유족을 조문했다. 지난 2일 박 후보 선거유세 일정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김 집당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오후 유명을 달리했다. 박 후보는 유족을 위로한 뒤 기자들을 만나 "꼭 이번에 다시 일어날 거라고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참 애타게 기다렸다"며 "뒤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 후보는 서병수 사무총장에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족들이 몹시 애통해 하고 있으신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다시 뭉친 동교동·상도동계 '절반의 재회'

권노갑·김상현 고문, 김덕룡·문정수 초청

박근혜 지지 나선 한광옥·한화갑은 불참

한국 야당사의 양대 축이었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일부 인사들이 12일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동교동계 인사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상도동계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을 초청,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과 정대철 고문, 김상현 전 의원, 설 훈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김 상임

의장을 비롯, 문정수 전 부산시장, 최기선 전 인천시장, 심완구 전 울산시장 등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도동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찬을 함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문 후보 지지선언에 합류한 상도동계 인사들만 참석했고 동교동계 핵심인 민주당 한광옥·한화갑 전 대표 등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하고 있어 이날 양 계파의 회동은 '절반의 재회'에 그쳤다.

김 상임의장은 "87년 YS와 DJ

의 단일화 실패로 민주화가 늦어지고 지역분할 구도도 심화했다. 우리가 잘못 모신 것"이라며 "이제라도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운을 폈다. 이어 권 고문은 "다시 뭉치게 돼 기쁘다"며 "과거 서슬 퍼런 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한 정신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조찬 자리에서 87년 6·10 민주화 항쟁 당시 등 민주협 활동을 회고하며 "87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심정으로 돌아가 정치혁신과 국민정부 창출을 돕자"고 의기투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文 낙선 댓글 의혹' 국정원 고발

국정원 "법적대응" ...경찰, 여직원 주내 소환키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은 12일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서 문 후보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 낙선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확보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면서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뒤 구체적인 목적이 국정원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또 "민주당이 완력을 이용해 개인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가족들의 자택출입을 막는 등 11일 저녁 이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빠뜨렸다"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이번 주 내로 소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명과 함께 선관위 직원 2명이 강남구의 오피스텔에 들어갔으나 조사 시간은 5분에 그쳤다"면서 "또 경찰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영장 신청만 고집하며 수사를 지연시켜 국정원의 증거인멸을 가능케 했다"며 경찰 및 선관위의 초동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을 끌어들이는 등,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또 "민주당이 완력을 이용해 개인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가족들의 자택출입을 막는 등 11일 저녁 이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빠뜨렸다"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이번 주 내로 소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대기 중인 민주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선뒤 출국...정치활로 모색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대선 후 해외에서 수개월 간 체류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정책포럼 관계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백의종군 자세로 대선에 입한 뒤 출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12일 전했다.

그는 "새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출국

은 하지만 이 길은 계속 갈 것"이라고 정치로 계속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 전 후보는 이날 강원 지역을 방문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원 활동을 6일째 이어갔다. 서울과 경기·부산 등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펴고 있는 안 전 후보는 이날 원주와 춘천을 찾아가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문국현·김현철씨도 "문재인 지지"

17대 대선 후보였던 문국현 <신진 왼쪽> 전 창조한국당 대표

가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공보단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잊혀진 저 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을 전한다"며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정치와 일자리 창출에 헌신하시는 두 분께 감사와 성원의 마음 보낸다.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우 단장을 전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신진 오른쪽> 전 새누리당 여 의도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사실상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사를 밝혔다. 김 전 부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의 민주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열정이 역사에 욱되지 않기 위해 이번 선거는 민주세력이 이겨야 한다"면서 "반드시 이기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세력을 종북세력으로 호도하는 세력이야말로 과거세력"이라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를 비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소액/공동투자 가능
▶1인 1물건 추천
▶회비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T.062-52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제,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옆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화된리분석 / 최상의대출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추천 물건 상담전화 김 중 원 이사 010-8227-77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기통(근린시설 4층) D4652m2, 22387㎡ 김평가 14억 최저가 4억95천 속박시설 [치병동] D4704m2, 29204㎡ 김평가 32억 최저가 22억 나주읍성 (주유소) D4428m2, 2553㎡ 김평가 10억6천 최저가 6억8천 신인양 [화입 판매시설] D4706m2, 21123㎡ 김평가 18억 최저가 10억 전북김제 [물류센터] D8076m2, 25004㎡ 김평가 25억 최저가 8억 전주시덕민구유출주점 D665m2, 2988㎡ 김평가 11억4천 최저가 5억9천 화순이양 [공정] D46536m2, 22056㎡ 김평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보성읍 [상가] D685m2, 2763㎡ 김평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충장로 (근린주택) D215m2, 2306㎡ 김평가 4억6천 최저가 2억 목포대양동 [수양관] D1786m2, 2408㎡ 김평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대촌동(2층공정) D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김평가 39억8천 > 매매가 25억5천 회정동 [청기외예식장] D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김평가 41억5천 >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북구 대촌동(2층공정) D대지 3289평 > 건물 1601평 > 김평가 52억4천 > 매매가 36억7천 목포 상동(속박시설) D대지 170평 > 건물 1131㎡ > 김평가 18억6천 > 최저가 11억3천 무안 망운(속박시설) D대지 257평 > 건물 346평 > 김평가 11억 최저가 6억4천 화순 도곡(무인텔) D대지 1904㎡, 22628㎡ > 김평가 26억7천 > 최저가 18억7천 나주중앙동(근린상가) D대지 330평 > 건물 480㎡ > 김평가 123억1천 > 최저가 16억2천 목포 상동(근린주택) D대지 1697 > 건물 2204평 > 김평가 88억 > 최저가 62억 서구 치평동(속박시설) D대지 213평 > 건물 617평 > 김평가 213억 > 최저가 222억4천 북구 용진동(공정) D대지 700평 > 건물 423평 > 김평가 22억3천 > 최저가 14억6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유통망이마트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찬모(여)2명, 설것이(여)1명, 홍서빙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회)후유,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개월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묵우탕
- 고시원
- 다구주택(일부,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개실 20개 대용 4억2천 매매가 8억9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철거용도로 적합
- 비어있던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청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